하나님과 불안한 연애중

(아가 2:8~3:5)

8.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불안한 연애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과 불안한 연애중'
연애의 모습은 시대와 세태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우 전통적 연애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열정은 구애의 단계에서 뜨거워지다가 여자의 수락을 받는 순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마음을 열고 남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열정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 의한 불균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연애가 시작되고 나면 남자들의 열정은 다소 시들해지고, 여자들은 그 열정을 찾지 못하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연애는 짜릿하고 달콤하고 황홀하지만 이런 감정들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불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이성을 마음에 담는 것이 연애인데,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대하는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므로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또 이성 관계에서는 경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성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젊은 여성이 연예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격 탓인지 두 달째 불안한 연애중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 대부분 남자들이 그랬듯이 열정이 사그라지고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인지 카톡도 잘 하지 않고 안 봅니다. 부탁을 해도 알겠다고 하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전화도 제때 받지 않는 일도 있다 보니 불안증이 도집니다.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카톡을 세 시간이나 늦게 보는 경우도 있고, 최근 통화에서는 달달한 느낌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만나기로 해놓고

취소한 적도 두 번이나 있습니다. 물론 급한 사정이 생긴 것이지만 온갖 상상이 듭니다.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삽니다. 연락이 잘 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밝다가 무미건조한 통화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생겨 미칠 것 같습니다. 나하고 연락하기 귀찮은 것이냐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뜸하고 그러면 또 불안해집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딱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애는 짜릿하고 달콤하고 황홀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도 바로 이러한 불안감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불안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초기단계의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술람미에서 각자가 살아가다가 재회하고 청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이후에는 청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16절에서는 청혼을 수락합니다.
3장 1~5절은 결혼하기 전에 술람미 여인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속에서 신랑감 솔로몬을 잃어버려서 거리를 헤매며 애타게 찾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찾았지만 또 잃어버릴까 집안의 가장 내밀한 곳인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불안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는 말은 곧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방해물인지 여인의 마음상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솔로몬 왕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술람미 여인의 불안감이 표현된 모습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결혼을 반대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시골 처갓집으로 와서 벽 뒤에 숨어 술람미 여인을 엿보아야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져있을 때에도 솔로몬의 마음이 언제나 자기 곁에 와있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벽 뒤에 서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지켜본다고 한 이유에도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을 달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행동을 잘못한다면 깜짝 놀라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마음이 헤어져있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와 있음을 느꼈지만, 작은 실수에도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달아나게 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

을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 자신의 처지와 왕 주변의 아름다운 경쟁자들이 많음을 생각할 때에 불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연애를 안 하고 말지 지금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한편 10절부터는 솔로몬의 청혼이 봄에 대한 묘사로써 나타납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못 보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봄에 대한 묘사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시기가 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져 있던 기간이 겨울이었다가 재회함으로써 봄으로 묘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청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봄과 같은 삶을 살자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동지방의 겨울은 우리처럼 춥고 얼어붙지는 않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구름이 잔뜩 낀 으스스한 추위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헤어져있던 상황을 이러한 겨울에 비유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봄으로 바뀌듯 들뜬 마음으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청혼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수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곧 솔로몬이 왕의 위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 가운데서 먹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를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에 비유하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주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비유를 받아서 '가시덤불 속에 핀 백합화'라고 답하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인다'라는 말과 '백합화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솔로몬 옆에 있는 동안에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솔로몬과 결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고 포도 열매가 맺혀질 환상적인 미래가 펼쳐지려고 하는 순간에 팔레스타인의 잡식동물인 여우를 떠올립니다. 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로 비유되는 방해꾼에 대한 불안감에 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앞서 말한 자신의 처지나 솔로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입니다.

17절을 보면 이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데르'라는 말은 '험준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험준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동물로 비유하자면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서 껑충 껑충 뛰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은 오히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험한 베데르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아가서는 선민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갖는 마음가짐의 정서적 측면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런 감정이 있어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을 향해 가진 술람미 여인의 불안감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3장 6절부터는 결혼식의 장면이 묘사되는데, 그 전에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다 솔로몬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꿈을 꾸었으니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이러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입니다. 몸이 죽어 천국을 가면 더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며 연애할 때에 갖게 되는 마음의 감정 상태는 본질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연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상태가 곧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여 하나로 결합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들보

다 우선하는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서는 나와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셔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백 번, 천 번 부를지라도 실제로 내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첫 번째 관심사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온 기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쳐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과의 연애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하는 마음의 기질이 죄적인 기질이라서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어질 수가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결합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기에, 이 불안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불행하게도 구원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라고 외치며 마음에 불안감이 없다면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에 마음은 애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인터넷의 고민처럼 사람을 좋아해도 불안감이 생기는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좋아함을 생애 최고의 일로 여겨야하니 불안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강력하게 목청을 높일지라도 정작 불안감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지금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속에는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으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앎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일이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됩니다. 이렇게 밀려나신 하나님은 결코 나와 결합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사이실 때에만 내 마음과 결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밀려나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밀려나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의해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죄적 체질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지속되는 한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감이 지속되지 않을 때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감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애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연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제일 좋은 분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한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안이 따르는 이유는 내 마음의 체질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에 첫 번째로 장악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적 체질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애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내 체질이 연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잠자는 동안조차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먼저 반응하는 나를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고 순간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동안은 주님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을 첫 번째 관심사로 받아들이려는 죄적 체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처럼 기가 막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애할 때에 생기는 불안감의 요소를 어떻게 이처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놓칠까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해도 불안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적 체질 때문입니다. 이 죄적 체질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으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을 치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